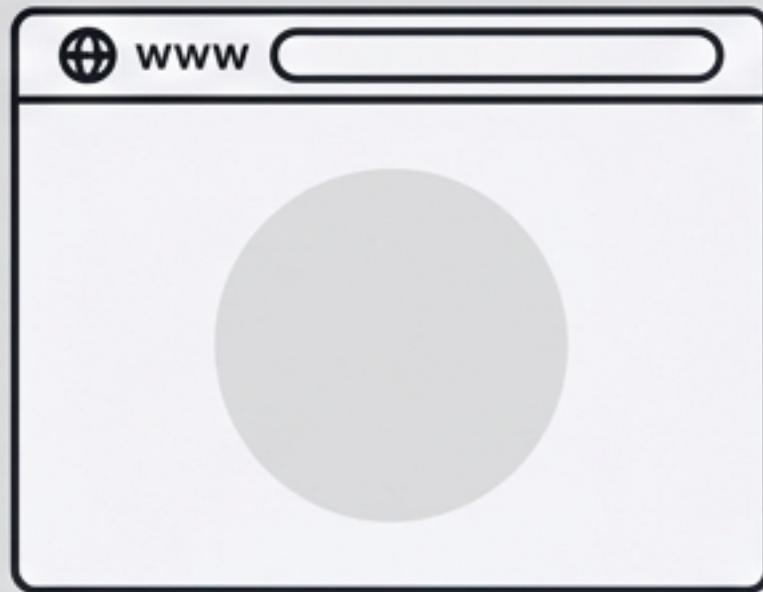


AI 버블 봉괴? 질문이 틀렸습니다

닷컴 버블과의 비교부터 앤비언트 컴퓨팅(Ambient Computing)의 미래까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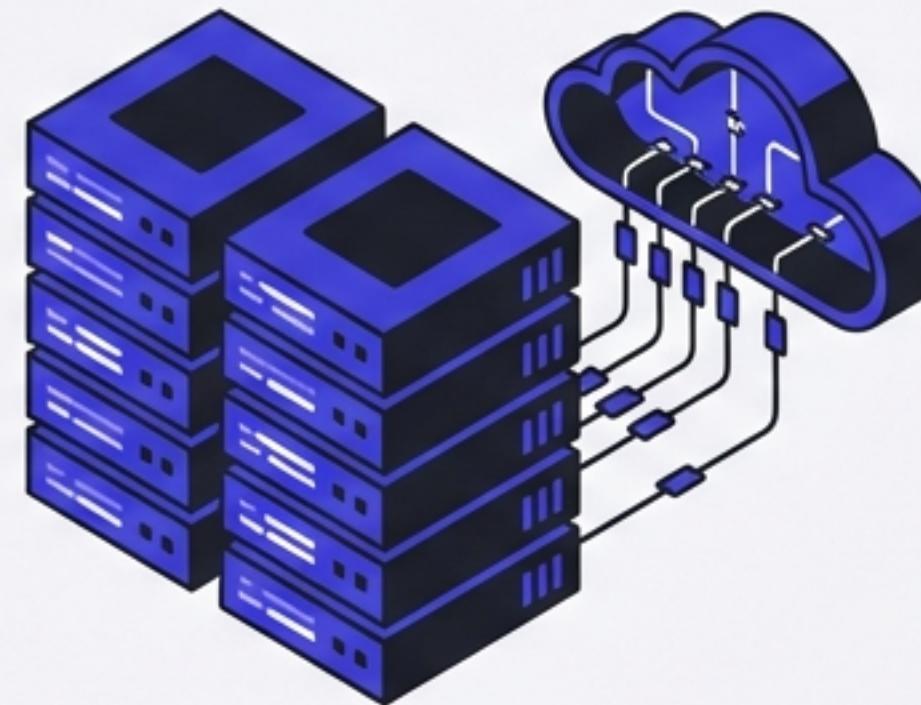
MARKET ANALYSIS & TECHNOLOGY OUTLOOK

과거: 실체 없는 기대



- 도메인 선점 만으로 주가 폭발
- 매출 0원

현재: 증명된 인프라 전쟁



- 클라우드/구독 모델 기반의 실질적 매출
- 빅테크의 견고한 실적

AI는 투기가 아닙니다. 실체가 증명된 인프라 투자입니다.

The Investment Paradox



시장의 우려: 막대한 인프라 비용 대비 아직 미미한 회수율.
현실: 이것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,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입장료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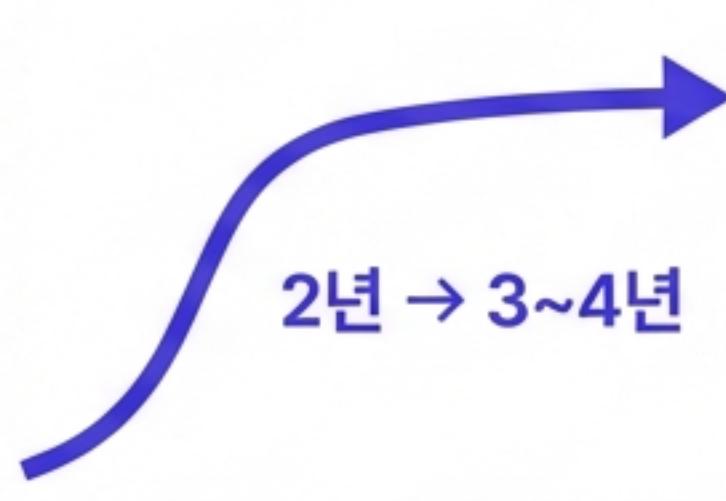
High-Contrast Editorial Future



Desperation Disguised as Innov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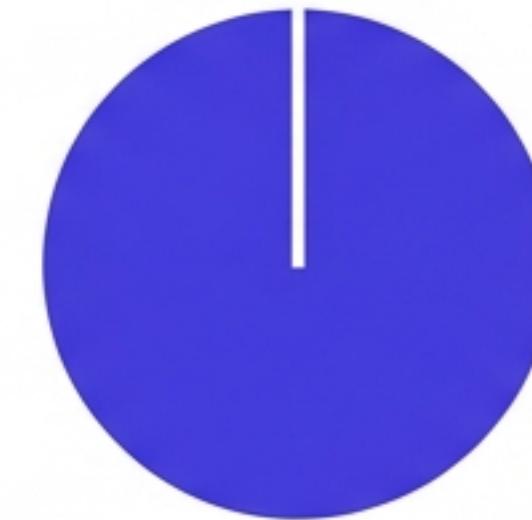
스마트폰 교체 주기 둔화

2년 → 3~4년



하드웨어 판매의 한계.

광고 시장 포화



더 이상 확장할 파이가 없다.
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.

고비용 저효율 구조



인건비 상승 vs. 생산성 저하.
AI는 24/365 근무 가능한 유일한 대안.

AI 투자는 '성장'을 넘어선 '생존'의 문제입니다.

애플의 현재: 골드러시의 '청바지 판매상'



- **Hedge Strategy:**
A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, 사람들은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.
- **Win-Win Scenario:**
AI 성공 시 → 아이폰 수요 증가 /
AI 실패 시 → 기존 생태계 유지

“시장은 애플을 AI 리스크의 헷징(Hedging)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.”

하지만,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위협받고 있습니다



현재의 터치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의도(Intent)를 한 번에 담아내지 못합니다.

비전: 앰비언트 컴퓨팅 (Ambient Computing)

정보(Information)에서 통찰(Insight)로의 이동

Smartphone Era

스마트폰 시대



정보 전달 (Information Delivery)



Ambient Era

앰비언트 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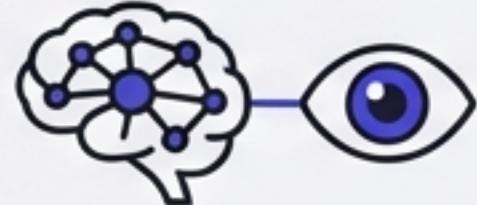


통찰 제공 (Insight Provision)



사용자가 스크린을 보지 않아도, AI가 공기처럼 주변에 존재하며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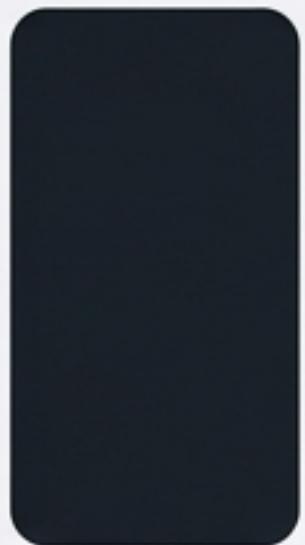
The OS Bottleneck

 	Legacy OS (Windows/iOS)		AI OS (Ambient)
Mechanism: Input / Output (입력/출력)			Mechanism: Context / Memory (맥락/기억)
Action: 클릭, 터치, 스크롤			Action: 의도 파악, 제안
Limitation: 입력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			Advantage: 말투, 숨소리, 위치, 과거 기록을 종합 추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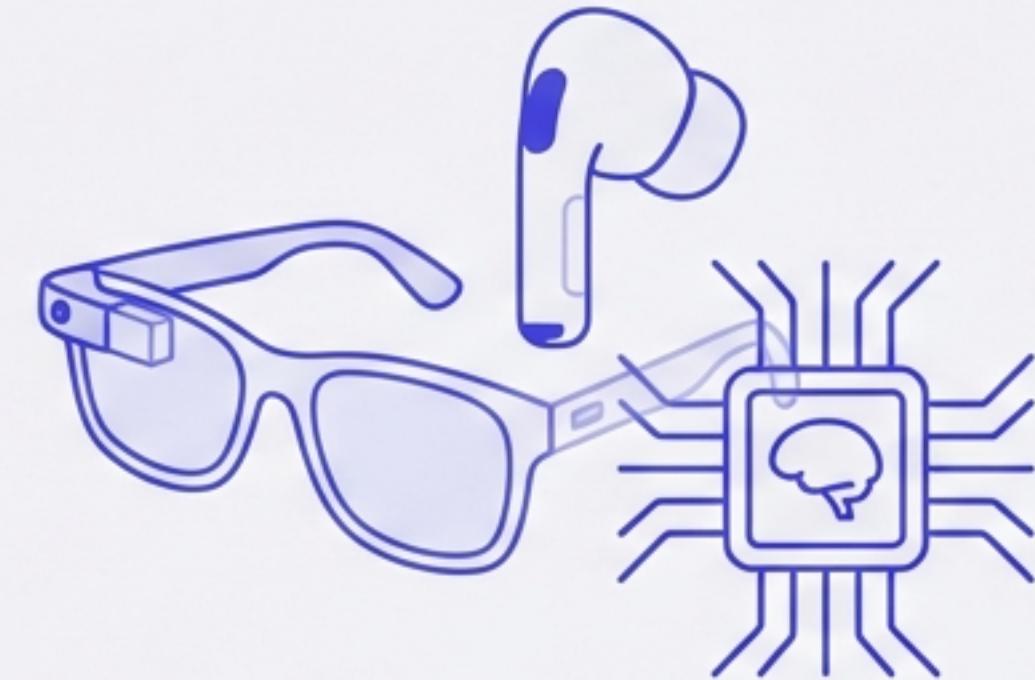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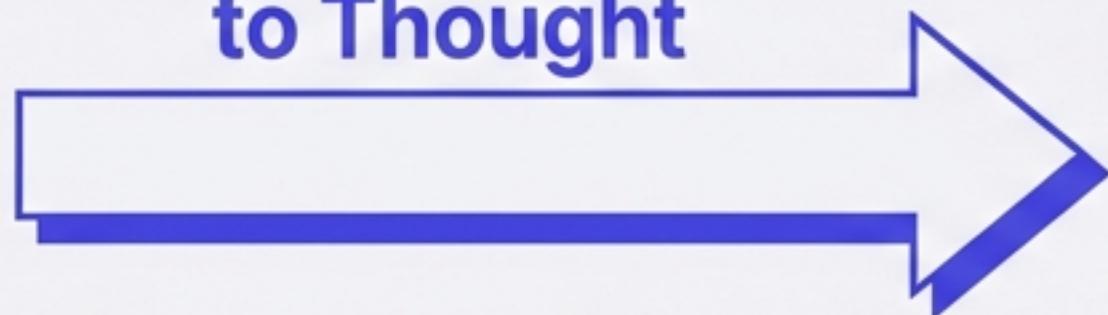


AI를 앱(App)에 가두는 것은 페라리 엔진을 마차에 다는 것과 같습니다.

스크린의 소멸,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



From Touch
to Thought



The Smartpho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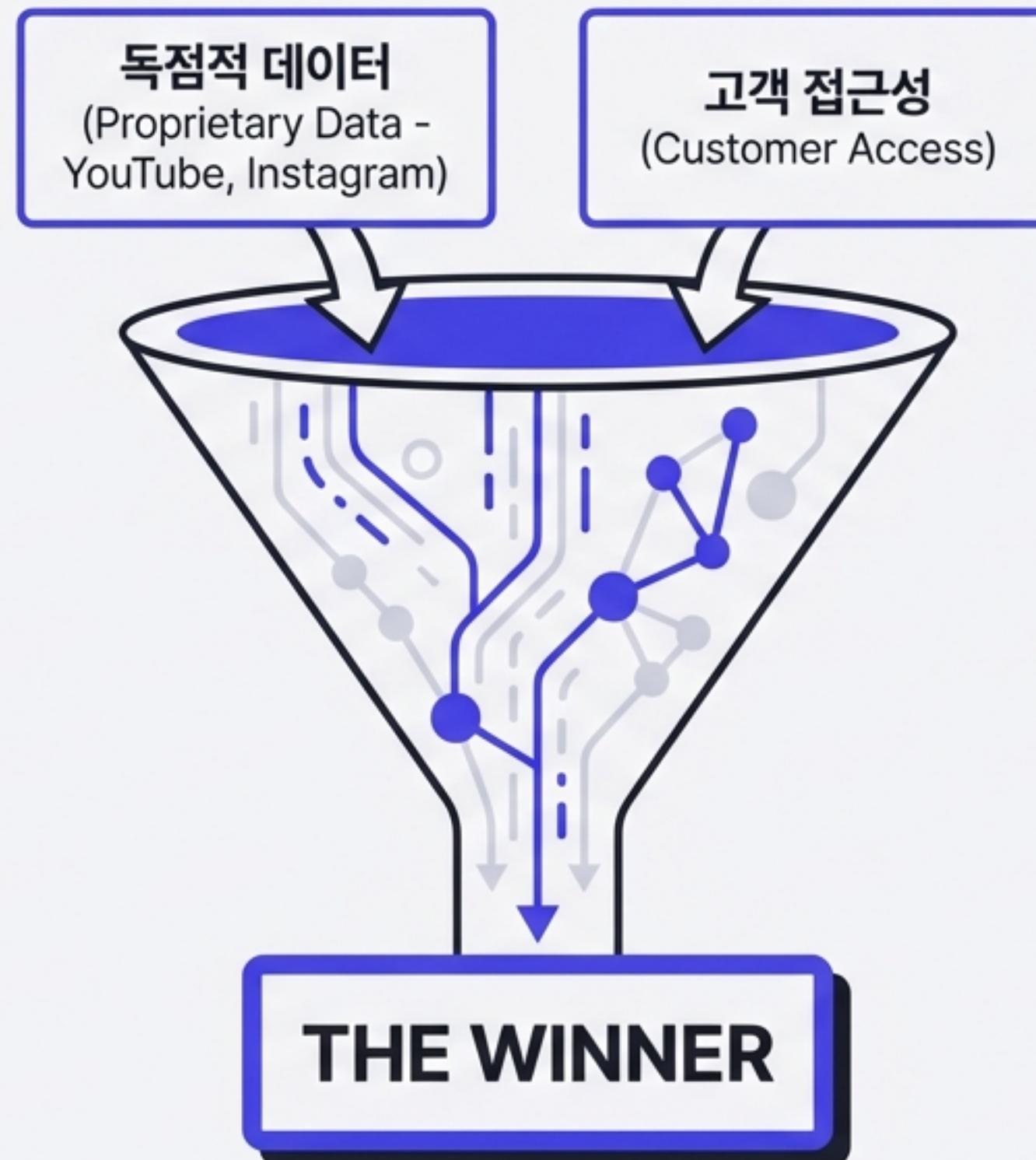
Key Driver

AI 구동 능력(Energy & Compute)이 하드웨어의 새로운 기준.

Impact

애플의 강점인 '터치스크린'과 '앱스토어' 생태계의 붕괴 가능성.

최후의 승자: 데이터와 고객을 가진 자



Company Outlook

- ✓ Microsoft / Google: 유리한 고지 선점
(데이터 + 인프라)
- ! Apple: 혁신 실패 시 과거의 델(Dell)처럼
하드웨어 껍데기만 남을 위험

보이지 않는 혁명 (The Invisible Revolution)

“기술이 완벽해질수록,
우리는 그 기술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.”

Novelty (신기함)

ChatGPT 등장 시의 충격

Normality (일상)

현재의 당연한 사용

혁명은 폭발이 아니라 ‘스며듦’입니다.

투자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



Ignore the Bubble Noise: 버블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.



Focus on Infrastructure: 누가 '철도(Data Centers)'를 깔고 있는가?



Watch for the OS Shift: 누가 '채팅창'을 넘어 '에이전트'로 진화하는가?



Identify Data Owners: 누가 독점적인 학습 데이터를 보유했는가?

파도에 휩쓸리지 말고,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.